

[보도자료] 쿠팡, 햇사과 50t 매입해 할인 판매 “사과값 잡는다”

2024. 7. 22.



- 오늘(22일)부터 햇사과 등 여름 과일 300t 할인 판매 "초록사과 1.5kg 9800원"
- 지난주까지 초록햇사과 10t 매입 썸머프린스, 썸머킹, 아오리 등 햇사과 대량 추가 매입

2024. 07. 22. 서울 - 쿠팡이 햇사과를 선보인다. 쿠팡은 오늘(22일)부터 썸머프린스, 썸머킹, 아오리 등 햇사과 50t을 할인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.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사과 가격 안정세에 힘을 보탠다는 의미다.

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썸머프린스, 썸머킹, 아오리 등 초록사과를 비롯해 복숭아, 메론, 체리, 자두 등 여름과일을 할인 판매한다. 특히 '초록사과 소과 1.5kg'는 동종업계 최저가 수준인 9800원에, '못난이 초록사과 중과 2kg'는 1만900원 판매한다. 쿠팡은 이번 행사를 위해 햇사과 50t을 포함해 여름 과일 약 300t을 준비했다. 최근 햇사과를 잇따라 매입한 유통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다.



쿠팡은 지난 6월 말부터 3주간 초록사과(썸머프린스) 10t을 발 빠르게 매입해 부사 보다 약 30%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다. 이달에는 경북 영주, 충북 충주 등 산지에서 썸머프린스, 썸머킹, 아오리 등 다양한 품종의 햇사과를 지속 매입하면서 햇사과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.

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.4% 오른 113.84로 집계됐으며, 사과(63.1%) 등의 과일 가격 강세는 계속됐다. 쿠팡은 햇사과 매입과 할인 판매로 ‘금()사과’라 불리며 고공행진 중인 사과 가격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.

김동수 디에스푸드 대표는 “냉해, 우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난해와 달리, 올해는 저온 및 서리 피해가 적어 사과 작황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양호한 상태”라며 “쿠팡에서 발 빠르게 물량을 매입해 준 덕분에 안정적으로 햇사과를 판매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

김기원 다조은후레시 대표도 “지금 나오는 썸머프린스, 썸머킹, 아오리 등 초록 사과부터 8~9월에 수확하는 홍로, 아리수까지는 출하량이 안정적인 상황”이라며 “농가 입장에서는 매해 출하량이 달라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중요한데, 쿠팡이 안정적으로 대량 매입 해주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된다”고 전했다.

쿠팡 관계자는 “이번 햇사과 할인 판매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,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”며 “쿠팡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